

통계청, 100일 후 ‘202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통계청 제공

전국 모든 농림어가 규모·구조·분포 파악

통계청은 대한민국 농림어업의 미래 설계를 위한 기초 통계 조사를 위해, 100일 후인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총조사는 전국 모든 농림어가의 규모와 구조, 분포, 경영 형태를 파악하는 5년 주기 전수조사로, 인터넷조사는 11월

20일부터, 방문면접조사는 12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2022년부터 센서스 통합관리시스템, 조사 모집단 및 공간정보 구축 등 조사 인프라를 체계화하고, 3차례의 시협조사와 시범예행조사를 통해 조사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또한 청내외 전문가와 농림어업

총조사 자문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를 통해 조사항목을 확정하는 등 총조사 실시 전반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

이번 총조사는 농산어촌의 기후변화(논벼 물관리), 영농기술 발달(스마트 농업), 인구구조 변화(국적·외국인 고용), 생활편의 시설 변화(동물병원, 산부인과, 가족센터) 등 최근 농림어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를 위해 ▲농림가 ▲해수면어가 ▲내

수면어가 ▲지역 등 4종 조사표를 완성했다. 인터넷조사는 '농림어업총조사 대상 가구 귀하'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11월 20일부터 응답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조사 가능하다. 본조사 시작 전까지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또한, 인터넷조사 참여자가 조사항목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챗봇과 AI 기반 24시간 콜센터로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사원의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안전교육과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통계청은 TV, 라디오, SNS, 현수막, 포스터, 가로등 배너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대국민 홍보와 조사원 모집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형준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와 농산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중요한 조사”라며 “전국 농림어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농어촌공사 노사, 농촌 마을회관 개보수 실시

전남 나주 포두·동녕 마을서 공동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노사(사장 김인중, 위원장 김은식)는 22일 전남 나주 포두·동녕 마을에서 '공동체 공간 개보수 활동'을 공동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마을회관은 농촌 공동체의 중심 공간이지만, 노후화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이용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사 직원들은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안전 손잡이 설치, 전기기구·방충망·냉방기 교체 등 시설 정비를 진행했다.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은 공사가 지난해 발간한 지침으로 ▲무장애 설계 ▲내부 공간 활용성 확대 ▲저에너지 설계를 반영해 주민 편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는 노동조합 집행부와 신입사원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포두 마을회관에서 봉사에 나선 한 신입사원은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식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측과 함께 지역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활동



▲농어촌공사 '마을 공동체 공간 개보수' 통해 '마을활력, 주민회합' 높인다 (농어촌공사제공)

을 펼칠 수 있어 뜻깊다”며 “더 나은 농어촌을 위해 노조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성과를 토대로 '공동체 공간 개보수 활동'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수원 이전 계획' 전면 재검토

조직개편에 따른 근무지 확정 보류

농촌진흥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수원에 배치할 예정이었던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 등 일부 부서의 근무지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나, 일부 부서의 수원 이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 저해와 연구 역량 약화 등 외부에

서 제기된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원 이전 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살펴 향후 방향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농업 연구의 효율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농협상호금융-NH콕서포터즈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 실천

경기도 포천시 조합원 사과농가 방문하여 대학생들과 함께 힘 보태

농협(회장 강호동) 상호금융(대표이사 여영현)은 지난 20일 농협상호금융 대학생 홍보단 'NH콕서포터즈'와 함께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소재 사과농가를 방문하여 작업 및 사과작업과 과수원 정리 등을 수행하며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 날 일손돕기는 2020년부터 시작된 농협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국민과 같이(價値) 농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NH콕서포터즈는 방학 기간에 직접 일손돕기에 나서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NH콕서포터즈의 이서진 학생은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농사일을 해보니 힘들었지만 농촌의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들에 작은 도움이라도 보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농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 이사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NH콕서포터즈 학생들이 농

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농협상호금융은 지속적인 일손 돕기로 우리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영 기자
ktya0712@daum.net



▲농협상호금융은NH콕서포터즈와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 실천(농협 제공)

전남농기원

‘늘봄학교 농업·농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고회’ 개최

맞춤형 농업·농촌 교육으로 미래세대 성장 지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지난 22일 미래세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늘봄학교 농업·농촌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농촌진흥청,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농촌교육농장협의회 회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늘봄학교 농업·농촌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사업은 학생

의 발달 단계와 교과 과정을 고려한 맞춤형 농업·농촌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체험 중심 교육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창의적 사고력 함양 ▲진로 탐색 ▲생태 감수성 제고 ▲전통문화 계승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되고 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은 학교 적응과 놀이·체험 중심 활동, 중학년은 교과 연계 탐구 활

동, 고학년은 진로 탐색·창의적 문제 해결 활동 등으로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정책 및 교과과정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범학교 적용 및 모니터링 ▲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자문위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손쉽게 만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을 한눈에!

우리가족 건강밥상에 올라오는 안전한 농산물 이야기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락시장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